

# 광주 '대·자·보' 중심 교통정책 대전환 실현 주목

●광천권역 특별 교통대책될 담았나

### 도시철도 상무광천선 지하터널 공법 추진...불편 최소화 보행전용교 설치 등 입체형 보행네트워크 '10분 도시'로 광천사거리 교통량 분산 위해 우회도로·교량 신설·확장

광주시에 광천권역 특별 교통 대책이 자동차 중심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대·자·보)'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언급 도시철도 급물살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상무광천선 신설은 지난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긍정적 검토를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시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천권역 특별 교통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올해 2월부터는 최고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했다. 최근에는 교통 분야 최고 전문가인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광주연구원 등의 자문을 거쳐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 교통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하는 상무광천선 노선은 기아자동차-종합버스터미널-방직공장터-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된다.

해당 구간의 경우 이미 교통 체증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데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방식(복합판 설치)으로 할 경우 최악의 교통 체증·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터널(NATM) 공법으로 공사를 추진, 시민 불편과 소음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기인 국토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광주시는 완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이다.

◇BRT구대동고-광천사거리-광주공고&67km BRT(간선급행버스)는 '제1차 국가 BRT 종합 계획'(2021-2030)에 반영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운광장-광천사거리-광주희망병원까지 10.3km 구간을 운행한다.

하지만 동운고에서 광주제과 앞 구간의 도로가 좁아 BRT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구 대동고에서 백운광장, 광천사거리, 용봉-매곡지구, 광주공고 방면으로 일부 노선을 변경해 '더현대 광주' 개장 전인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RT 운행과는 별개로 광천권역을 경유하는 도심급행버스는 광주시 7대 주요 생활권은 물론 광주송정역, 대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 거점을 동-서, 남-북 방향으로 연결하는 총 4개 노선 70km 구간을 운행한다.

급행버스의 정시·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정류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요 정류장만을 정차해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광천권역의 경우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한다. 버스전용차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로 운행 구간도 3개 속 17.8km를 추가 지정한다.

상행버스는 복합쇼핑몰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복합쇼핑몰에만 머무르지 않고 양동시장·충장로·금남로·동명동·양림동·문화전당 등을 방문해 쇼핑·관광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기아차사거리-방직공장터 보행자에 초점 보행자 중심의 품격 높은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인 기아차사거리에서 방직공장터까지 1.2km 구간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광천사거리에서 광천1교 육거리까지 400m 구간에 대해 차로 축소 후 보도를 확장,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단계

는 기아차사거리에서 광천사거리 구간을 신세계 개발 계획과 연계해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확장된 보행 공간과 연계해 광주천 상부에는 반원 형태의 '입체형 보행전용교'가 건설된다.

입체형 보행전용교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광천권역의 상징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입체형 보행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신세계백화점에서 방직공장터까지 18분 이상 소요되는 보행 접근 소요 시간이 10분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광천사거리와 죽봉대로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 광천1교-신안교 간 왕복 8차로

도로 개설을 포함 총 4개 도로를 신규 개설(총연장 2.29km)하고 주변도로 6개소(총연장 3.89km)도 확장한다.

이와 연계해 광주천 횡단 교량 3개소(총연장 0.33km)를 신규 설치하고 서광주IC 방면의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해 광암교와 광암고가교를 확장한다. 펌프언스필드와 더현대 광주를 연결하기 위해 서방천에는 보행 전용교를 설치한다.

강기정 시장은 "광천권역 교통 대책이 수립된 만큼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는 물론, 교통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부 과제별 추진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 전남 식품·생활용품 인도네시아서 인기

10개 중소기업 자카르타 박람회 참가...131만 달러 수출계약·협약

전남도가 지난 8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해 총 131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과 수출협약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남 우수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했다. 참가 기업들은 전통 식품부터 생활용품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해여름은 천일염 제품을 선보여 10만달러 규

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해여름의 천일염은 고급 조미료로서 현지 바이어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동서산업은 친환경 생활용품인 컬러우드칩으로 현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5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했다. 이는 전남 참가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이 기대된다.

좋은영농조합법인도 대륙식품, 영산홍어도

수출협약을 성사시켰다. 좋은영농조합법인은 전통적인 한국 음료인 배음료, 사과음료로 현지 바이어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5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했다.

대륙식품은 김을 중심으로 5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했다. 우수한 품질과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확장이 기대된다.

영산홍어는 반려동물 간식 및 화장품 분야에서 1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성사시켰다. 현지 시장에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양시원 기자

## 광주시·정책연구회 '對中 외교 발전 방향' 정책포럼

광주시와 광주정책연구회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국의 국가 핵심 이익 정책과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7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중 관계 30년을 돌아보고 대중국 외교 추진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강기정 시장과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이민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국 외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도시외교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는

한·중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증가하는 등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며 "중앙정부 외교 보완 혹은 대체 가능하나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 대비 목적·분야·거버넌스 등 모든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중국 외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부응을 위해 ▲공동 문제 해결 목적의 다자외교 활성화 ▲도시외교 6대 어젠다별 전문화된 외교 추진 ▲교류·협력 플랫폼 제도화 수준 제고 ▲한·중·일 삼자 외교 확대와 활성화 ▲다층 거버넌스 구축과 온오프라인 결합 교류 체계화 등 5가지 제언했다.

／박선강 기자



남겨진 자들의 시간 | 120x120cm | Acrylic on canvas | 2024

## 2024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

2024. 9. 27. (토) - 10. 6. (일) | 광주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

작품판매전

부대끼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이들의 감정을 보듬어주는 작가

#남겨진 자들의 시간  
속도감있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심리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관계맺음을 통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받는다. 세상의 관계 맺음이란 서로의 노력없이 지속되기 힘들고 한쪽의 편안함은 다른이와 불편함의 대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평행선을 그리며 나아가기도 하고 상반된 시선으로 분석하며 서로 대립하고 각을 세우며 서로에게 다양한 감정들을 표출한다. 나는 이러한 감정들의 행태를 디자인하고 다양하게 색깔을 입혀 치열한 세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재미난 형상으로 보여줌으로 그들의 다친 감정을 잠시나마 보듬어주고자 한다.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과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녹여내 보려했다. 내 작품을 통해 우리 삶의 진솔한 흔적을 되내어, 많은 기억들을 상기해보며 또 다른 희망을 품어갈 수 있길 바라고 때문이다.



이철규 작가

**개인전** 6회 (서울, 광주, 곡성)

**단체전** 다수 (스페인, 싱가포르, 서울, 담양, 제주, 구미, 대전, 도쿄, 파주)

**아트피어** 4회 (싱가포르, 서울, 인천)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 문의 | 광주매일신문 062) 650-2079